

##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전망 및 과제\*

권현수\*\* · 임성옥\*\*\*

### 1. 서 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사회정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복지국가는 20세기말에 여러 형태의 저항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존 복지체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은 '정부'나 '시장'의 논리가 아닌 또 다른 논리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사회(civil society)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출발이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영리부문, 혹은 제3섹터(third sector)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에로의 이행과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비영리부문은 국가가 아니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민간영역이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이다.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영역(Independent Sector)이라고도 부르며, 독립적이라는 것은 정부나 영리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뜻으로 행정·재정면에서 상호관계는 맺지만 자주적, 자발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山内直人, 1996. 김동배 외, 1998. 재인용). 이와같은 자발적, 자주적, 독립적 조직체로서의 비영리조직의 핵심은 바로 자원봉사이며, 앞으로 한국 시민사회에서 지향되어야 할 가치 역시 '공동체 의식' 혹은 '연대의식'에 근거한 적극적 시민참여가 될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또는 참여가 생활

\* 본 연구는 1999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대구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한 "대구시민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의식조사"의 raw data를 재분석하고, 수정·보완하여 완성되었음.

\*\* 전석복지재단 대구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 부장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화, 체득화되어 왔으며, 그러한 경험의 축적위에서 국민복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의 극대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남미애, 1997:1).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욕과 불신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정부(NGO), 비영리(NPO), 제3섹터에 신뢰와 시민 권력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의 근저에는 자원봉사운동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이창호, 1999:60-61).

특히 2001년은 UN '세계자원봉사의 해'로서, 시민자원봉사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되고 있다. 즉 시민사회운동의 원동력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없는 시민사회운동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의 기초이자 원동력인 것이다. 자원봉사의 미래는 법적 공급의 확대, 자발적 조직과 사회복지사, 연구자들의 사고와 계획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웃으로서 서로 도우며, 사회적 욕구를 상호충족시키는 데 얼마나 적극적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Mary Morris, 1998: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및 특성은 물론 참여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실증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80년대 이후부터로 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의 실태조사, 그리고 90년 후반기의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3가지 부류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당부분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절차, 연구방법상의 한계 등으로 조사결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편중되어 있는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나 연구지역 혹은 연구대상에 따라 자원봉사참여율이 5%에서 45%까지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현대사회연구소, 1984; 주영길, 198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대구사회복지협의회, 1993; 정무장관(제2)실, 1993; 한국여성개발원, 199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1996;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1997; 전라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1998 등). 그리고 전국규모의 91년 통계청 조사(통계청, 2000), 96년 중앙일보의 조사(중앙일보, 1996. 7. 7) 등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간의 상호연관성이 부족할 뿐더러<sup>1)</sup> 그나마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적인 변화를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자원봉사활동에 대해 80년대 이후 대상별, 수요처별로 각기 필요에 의해 연

1) 91년 통계청의 자원봉사자 실태조사에서는 15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원봉사참여율은 자원봉사 유경험자로 연구하였는데 비해, 중앙일보의 조사는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자원봉사경험자를 자원봉사참여율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대상면이나 자원봉사자의 규정면에서의 차이점으로 인해 상호연계적 해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구되어 온 여러 조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연구절차를 통해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실태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연구의 일차 목적을 두며, 이를 토대로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전망과 그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성숙·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이나 변화양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특성들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 규정 및 시민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 조사대상의 기준연령 선정 등 공통적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20세이상의 성인남녀로 규정하고, 지속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경력 1년이상의 경험자로 자원봉사자를 한정하는 조건 하에서 실증연구를 하였으나 인력, 조사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대구지역으로 한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 II.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된 계와 두레라는 주민협동체를 통한 지역사회활동 및 향약 등에서 그 역사적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이청자외 3인, 1993:16).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자원봉사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품을 팔아 상호부조하는 경제적 보상의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다(남미애, 1997:101).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1903년 YMCA 창립을 시작으로 하여 기독교 사상이 유입되면서 교회 및 관련단체 중심의 초보적 형태로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일제시대에는 구국운동으로 시작한 학생운동의 형태로, 해방이후에는 그 성격이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 농촌봉사활동 등의 봉사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60-70년대 경제 근대화와 함께 전개된 새마을운동이 소득수준 향상 및 의식개발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원봉사정신의 확대 및 고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자원봉사인력은행이 84년에 설치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단이 85년에 조직되는 등 80년대에 들어서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은 시민자원봉사의 정점을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인식시키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이미정, 1996:29)

이처럼 80년대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라면, 90년대는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화시키려는 발달·성숙의 시기로 볼 수 있다. 91년 6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는 전국 15개 시·도단위에 지역봉사센터를 설립하고, 91년이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기관들이 설립되며, 94년에는 30여개 민간단체들이 모여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자원봉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95년을 중심으로 중앙일보 등 언론에 의한 자원봉사 캠페인과 홍보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후 5·31 교육개혁안과 함께 실시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육성,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안의 제정노력, 기업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업무실적 반영, 대학에서의 자원봉사 학점화 및 지원, 그리고 전국 시·도 단위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등이 한국사회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95년 이후 행정자치부산하의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이 98년 8월을 기준으로 약 500여개(김미숙·김성희, 1999:43)에 이르게 되면서 양적으로 상당한 팽창을 하게 된다. 즉 90년대 전반기를 자원봉사의 발달·전개기라고 한다면, 90년대 후반기는 자원봉사의 성숙·심화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0년대 후반기를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성숙·심화기로 볼 수 있는 근거에는 이 시점을 전후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양적인 증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 내·외부적인 변화가 이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한 민주주의와 OECD, UN 같은 국제기구와의 가입 등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사회, 경제 체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 욕구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사회의 원동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강화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 Ⅲ. 시민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선행 실증연구의 특성 및 문제점

시민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참여특성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확충·심화되는 시기인 80-90년대에 행해진 실증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해 진행되어 온 실증연구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현재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및 태도를 연구한 것들이다. 이 연구들은(현대사회연구소, 1984; 주영길, 198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등)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80년대에 주로 행해졌다는 특성을 띄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 혹은 이미 자원봉사활동

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하여 기존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대상의 한정성, 즉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이나 참여태도로 일반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때에는 마치 우리나라 전체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 특성인 것처럼 확대해석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실태를 연구한 것으로, 주로 90년대 전반기에 많이 이루어졌다.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발전·전개되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표적 실증연구로 한국여성개발원(1993)에서 이루어진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의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의 활용실태와 수요전망에 관한 연구'(199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용상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집중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또한 여전히 조사대상의 한정성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세 번째 부류로는 자원봉사가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숙·심화되는 시기인 90년대 후반에 주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을 꼽을 수가 있다(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1996;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1997;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1998 등). 이 연구들은 현재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나 그들을 활용하는 기관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전체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 태도 및 특성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절차나 표집방법에 있어서 비체계적, 비과학적 방법이 상당히 발견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 지역의 시민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면, 96년도에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연구한 실증연구에서는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임의배포라고 하여 무작위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일차적으로 지역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직·간접적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조사대상이 사회복지관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나 그 주위의 일반 시민들로 편중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97년도에 이루어진 울산시의 조사 역시 만 16세 이상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체 응답자의 43.2%가 10대와 20대로 구성되고, 42.0%가 학생층으로 제한되는 등 표집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98년도의 전주시 조사에서도 74.7%가 10-20대로 표집되었고, 또한 중고등학교에 가서 집중 조사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점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이와같이 80-90년대에 행해진 상당수의 실증연구들이 조사대상의 선정이나 표집상의 오류 및

조사절차상의 오류에 노출됨으로써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시대별 특성이나 변화양상의 추이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나마 전국 규모로 이루어진 91년 통계청 조사(1991)와 93년 정무장관(제2)실의 조사(1993) 그리고 96년 중앙일보 조사(1996)가 우리나라 시민자원봉사활동의 변화를 어느 정도 짐작케 해 준다. 그러나 이 연구들 또한 자원봉사자 규정이나 조사대상면에서의 상이성으로 인해 상호연계적 해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즉 91년 통계청의 자원봉사자 실태조사에서는 15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원봉사참여율은 자원봉사 유경험자로 연구하였는데 비해, 중앙일보의 조사는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자원봉사경험자를 자원봉사참여율로 규정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연구는 91년도에 1회 실시로 그쳤으며, 중앙일보 또한 96년도에 1회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별로 우리나라 시민자원봉사활동의 특성 및 실태를 전망하고 예측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상의 한계 그리고 연구간의 상호연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 시민 자원봉사활동의 객관적 지표로 삼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러 자원봉사 관련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들이 중복됨으로써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들에게도 이중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방법으로서 조사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현상을 파악하고 현상속에 내재하는 규칙을 발견하여 그 규칙을 사회현상 속에 일반화하거나 혹은 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채서일, 1995: 8-15). 한 사회의 자원봉사참여율 정도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시민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예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와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지속적인 실증연구결과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흐름이나 경향을 파악한 이후에야 시민자원봉사활동이 당면한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등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시민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강구될 때 효과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특성 및 변화양상 추이를 시대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먼

- 
- 2) 부산시자원봉사센터의 조사에서는 부산시민의 10.1%가 '현재 참여자'로, 23.0%가 '과거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96년기준 부산시민의 33.1%가 자원봉사참여자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13.2%가 '현재참여자'로, 27.8%가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97년기준 울산시민 41.0%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조사결과에서는 98년기준 현재 참여자가 7.8%, 과거 참여자가 37.6%로 총 45.4%의 시민들이 자원봉사경험이 있다고 밝혀놓고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표집방법이나 절차상의 오류에 노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하겠다.

저 시민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 모집단의 기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객관적 개념규정 및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구대상에 대한 개념규정의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기준을 20세이상의 성인남녀로 규정하고, 지속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경력 1년이상의 경험자로 자원봉사자를 한정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 IV. 조사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성적반영으로 인하여 다소 비자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중·고교생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발적 의지에 따라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 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9년 7월 12일에서 7월 14일 까지 3일간이었다. 대구광역시 2개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8월 1일에서 8월 7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 4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이들을 조사면접원으로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사(fieldwork)를 할 때, 일대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고 연령층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자기기입식을 활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 3.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의 표본수는 총1000사례로, 표본추출방법은 대구광역시 8개 구별, 성별, 연령별 비례에 의한 층화표본추출 방법이다. 그리고 표본오차는  $\pm 3.1\%$ (95% 신뢰수준)이며, 표본추출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1>과 같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 8.0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료처리는 대구시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원봉사에 관한 태도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경향은 교차분석(Crosstabs)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 참여 선호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표 1> 표본특성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486	48.6	직업	학생	131	13.1
	여	514	51.4		가정주부	189	18.9
연령별	20대	270	27.0		사무직 회사원	60	6.0
	30대	276	27.6		노무직 회사원	52	5.2
	40대	206	20.6		공무원	21	2.1
	50대	129	12.9		전문직	94	9.4
	60대이상	119	11.9		자영업	296	29.6
종교	개신교	141	14.1		무직	100	10.0
	천주교	132	13.2		기타	57	5.7
	불교	359	35.9		소득	무응답	35
	기타 종교	22	2.2	100만원미만		274	27.4
	종교없음	346	34.6	100-200만원미만		464	46.4
결혼 유무	미혼	286	28.6	200-300만원미만		159	15.9
	기혼	694	69.4	300만원이상		68	6.8
	기타/무응답	20	2.0	지역별	중구	44	4.4
학력	중졸이하	214	21.4		동구	140	14.0
	고졸	412	41.2		서구	126	12.6
	대재	138	13.8		남구	87	8.7
	대졸이상	236	23.6		북구	153	15.3
					수성구	185	18.5
			달서구	210	21.0		
			달성군	55	5.5		



## V. 결과분석 및 고찰

### 1. 시민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특성

#### 1) 시민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의 32.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들의 경우 18세이상의 성인남녀중 49%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34%, 스웨덴의 경우가 36%, 네덜란드가 38%로(1993년 기준) 서구 선진국들의 참여율(Chronicle of Philanthropy, 1995. 주성수, 1999:52 재인용)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민자원봉사 참여율이 91년도에 16.9%<sup>3)</sup>(통계청, 2000), 96년 21.8%<sup>4)</sup>(중앙일보, 1996)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시민자원봉사 참여율이 양적으로는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자원봉사의 경험은 선진국과는 달리 지속성 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2.7%라는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 자원봉사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단 1회의 경험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시민 자원봉사 참여율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참여 유경험자 32.7%에는 현재에도 지속중이라고 한 경우는 7.6%에 불과하며, 나머지 25.1%는 중단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1년이상 참여자를 자원봉사자로 제한을 하고자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를 1년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우로 제한하고 분석한 결과, 15.7%로 그 수치는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통계청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는 91년기준 현재 활동자가 5.4%, 경험은 있으나 현재 중단자가 11.5%로, 자원봉사활동 경험자를 16.9%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20세이상 성인 남녀로 한정하는데 비해, 통계청에서의 연구결과는 1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15세 이상을 포함한다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앙일보의 조사결과는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96년 7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자원봉사 경험자를 참여율로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참여율 증가면에서 있어서 그 경향은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2> 시민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빈도(%)

자원봉사 참여 유경험자	327 (32.7)	1년이상 참여자	157 (15.7)	현재 참여	61(6.1)
				현재 중단	96(9.6)
		6개월-1년미만 참여자	29(2.9)	현재 참여	6(0.6)
				현재 중단	23(2.3)
		6개월미만 참여자	141(14.1)	현재 참여	9(0.9)
				현재 중단	132(13.2)
자원봉사 참여 무경험자	673 (67.3)				

2) 시민자원봉사 참여특성

(1) 시민자원봉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1년이상 참여자를 자원봉사자로 제한하여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시민자원봉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57)

단위: 빈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87(55.4)	직업별	학생	24(15.3)	
	여자	70(44.6)		가정주부	27(17.2)	
연령	20대	41(26.1)		사무직회사원	8(5.1)	
	30대	39(24.8)		노무직회사원	5(3.2)	
	40대	38(24.2)		공무원	7(4.5)	
	50대	23(14.6)		전문직	16(10.2)	
	60대이상	16(10.2)		자영업	52(33.1)	
결혼유무	미혼	41(26.1)		무직	12(7.6)	
	기혼	116(73.9)		기타	6(3.8)	
종교	개신교	29(18.5)		소득별	100만원미만	36(22.9)
	천주교	36(22.9)			100-200만원미만	74(47.1)
	불교	50(31.8)			200-300만원미만	33(21.0)
	기타종교	4(2.5)			300만원이상	12(7.6)
	무교	38(24.2)			무응답	2(1.3)
학력	중졸이하	24(15.3)				
	고졸	67(42.7)				
	대재	29(18.5)				
	대졸이상	37(23.6)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특성을 인구통계학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55.4%로 여성(44.6%)보다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50-60대가 자원봉사 참여에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시민자원봉사 특성은 청·장년층 참여가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다양한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 대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5) 결혼유무로 따져 볼 때는 기혼이 73.9%로 미혼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75.8%)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24.2%)보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경우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33.1%)와 가정주부(17.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15.3%), 전문직(10.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득별로는 100-200만원미만인 경우가 47.1%로, 고소득인 300만원 이상층이 7.6%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2) 시민자원봉사자의 참여활동 분야 및 참여동기

다음 <표 4>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참여한 자원봉사분야와 동기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6.9%로, 2/3이상이 사회복지분야에 치우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공공기관이 15.3%, 환경관련분야가 8.3%등의 순으로 나타나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장이 지극히 한정적인 특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및 참여동기(n=157)

참여분야(다중응답)	빈도 (%)	참여동기	빈도 (%)
사회복지시설	66.9	남을 돕고 싶어서	39.5
공공기관	15.3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10.8
환경관련봉사	8.3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8.3
의료관련봉사	5.1	종교생활의 일환으로	16.6
교통관련봉사	4.5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2.5
문화관련봉사	1.3	승진, 진학, 성적, 취업에 도움	3.8
기 타	7.6	자신의 인격성장, 발전에 도움	12.7
		기 타	5.7

참여동기로는 '남을 돕고 싶어서'라는 이타적 동기가 3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생

5) 55세이상 노년층의 자원봉사참여가 높은 곳은 특히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을 꼽을 수 있다.

활의 일환으로'가 16.6%로 나타났다. 그 외 '자신의 인격성장, 발전을 위해'가 12.7%,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10.8%,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가 8.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즉 시민자원봉사자들의 과반수가 '남을 돕는 이타적 행위'로나 자신의 '종교적 활동'과 같은 자선, 박애적 동기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 및 참여특성 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저 대구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2.7%로 양적으로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단 1회의 경험까지 모두 포함한 32.7%라는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현재 우리나라 시민 자원봉사 참여율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참여 유경험자 32.7%에는 현재에도 지속중이라고 한 경우는 7.6%에 불과하며, 나머지 25.1%는 중단자로 나타나 자원봉사경험자 중 2/3이상이 지속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자원봉사자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지속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1년이상 참여자를 자원봉사자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장년층에 한정되는 연령층의 불균형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으며, 참여자 2/3 이상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장이 지극히 한정적인 특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동기에 있어서도 자선, 박애적 동기, 특히 20대층에서는 점수나 성적, 취업을 염두에 둔 이기적 동기가 상당히 주류를 이룸으로써 지속적 참여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봉사교육의 철학이나 가치가 젊은 층에게 충분히 내면화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동기 부여와 성장을 가능케 하는 교육 및 훈련(IIslley, 1990:96)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케 해준다.

## 2. 시민자원봉사의식 및 태도

### 1) 자원봉사 이미지

시민들의 자원봉사의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민들에게 자원봉사가 무엇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5>는 '자원봉사'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를 재구조화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시민들의 48.7%가 자원봉사를 희생이나 자선, 선행, 남을 돕는 일 등의 시혜적인 선의의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불우이웃, 소외계층,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위 요보호계층을 떠올리는 경우가 10.2%, 사회복지시설, 단체를 떠올리는 경우가 9.2%로 나타났으며, 반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시민책

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해야하는 시민의 의무라는 시민의식으로서의 자원봉사 의식은 구축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유럽선진제국의 시민 과반수 정도가 “누구나 평생 어느 때에 자원봉사를 해야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시민의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응답결과와 상당히 대조적인 인식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Gastin & Smith, 1995. 주성수, 1999:48 재인용).

한편 이러한 결과는 연령, 학력, 소득별로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선, 선행, 남을 돕는 일로 자원봉사를 보는 경우는 20-30대, 고졸, 100-200만원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으로 자원봉사를 인식하는 경우는 30대, 고졸, 100-200만원층이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 불우이웃, 소외계층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는 30-40대, 고졸, 100-200만원층이며, 성적이나 점수 등을 떠올리는 경우는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더 높으며, 그외는 고졸, 100-200만원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자기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0대와 고졸, 100만원미만층이 상대적으로 다소 더 많으며, 자발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0대, 고졸, 100-200만원층이 다소 더 많다.

<표 5> 자원봉사 이미지(n=1,000)

단위 : 빈도(%)

구 분	자선, 선행, 남을 돕는 일	사회복지 시설, 단체	불우이웃 소외계층	성적, 점수	사회에 필요한 제도, 책임	자기 만족	자발성	떠오르는 이미지 없음	통계값
전체	487(48.7)	92(9.2)	102(10.2)	24(2.4)	14(1.4)	16(1.6)	15(1.5)	250(25.0)	-
연령	20대	145(29.8)	27(29.3)	25(24.5)	9(37.5)	4(28.6)	1(6.3)	3(20.0)	$\chi^2=54.53$ df=28 p=.002
	30대	135(27.7)	31(33.7)	31(30.4)	5(20.8)	3(21.4)	4(25.0)	3(20.0)	
	40대	78(16.0)	23(25.0)	32(31.4)	4(16.7)	2(14.3)	6(37.5)	7(46.7)	
	50대	66(13.6)	8(8.7)	9(8.8)	5(20.8)	2(14.3)	4(25.0)	1(6.7)	
	60대이상	63(12.9)	3(3.3)	5(4.9)	1(4.2)	3(21.4)	1(6.3)	1(6.7)	
학력	중졸이하	93(19.1)	12(13.)	22(21.6)	3(12.5)	2(14.3)	3(18.8)	1(6.7)	$\chi^2=36.17$ df=21 p=.021
	고졸	204(41.9)	33(35.9)	46(45.1)	9(37.5)	6(42.9)	9(56.3)	8(53.3)	
	대재	76(15.6)	16(17.4)	14(13.7)	4(16.7)	3(21.4)	2(12.5)	2(13.3)	
	대졸이상	114(23.4)	31(33.7)	20(19.6)	8(33.3)	3(21.4)	2(12.5)	4(26.7)	
소득	100만원미만	129(26.5)	12(13.0)	29(28.4)	3(12.5)	3(21.4)	9(56.3)	2(13.3)	$\chi^2=62.49$ df =28 p=.000
	100-200만원미만	240(49.3)	42(45.7)	47(46.1)	12(50.0)	7(50.0)	2(12.5)	6(40.0)	
	200-300만원미만	72(14.8)	26(28.3)	17(16.7)	3(12.5)	2(14.3)	3(18.8)	4(26.7)	
	300만원이상	33(6.8)	9(9.8)	5(4.9)	3(12.5)	0(0.0)	0(0.0)	3(20.0)	
	무응답	13(2.7)	3(3.3)	4(3.9)	3(12.5)	2(14.3)	2(12.5)	0(0.0)	

2) 자원봉사 필요성 및 실제 참여의사

<표 6>은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설문결과, 대구시민 대부분(95.9%)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20-30대가 40-60대에 비해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40-60대중에서도 60대 이상이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인식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chi^2=46.57$ ,  $df=16$ ,  $p=0.001$ ). 학력에 있어서도 대졸이상이 그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chi^2=21.85$ ,  $df=12$ ,  $p=0.05$ ). 반면, 성별이나 소득,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자원봉사 필요성 (n=1,000)

	빈도 (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769	76.9
약간 필요하다	190	19.0
별로 필요없다	9	0.9
전혀 필요없다	9	0.9
잘 모르겠다	23	2.3

한편 실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4.9%만이 '지금 당장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78.2%는 '여유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비해 실제 참여태도는 다소 유보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될 경우 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7>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n=1,000)

	빈도 (명)	백분율(%)
지금 당장 참여하고 싶다	49	4.9
여유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	782	78.2
참여의사 없다.	148	14.8
무응답	21	2.1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데, 연령, 학력,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성별이나 지역별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 특히 20-30대층에서 '여유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는 유보적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chi^2= 155.88$  df=8 p=0.001), 학력별로는 고졸 및 대학 재학생이 '여유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chi^2= 90.97$  df=6 p=0.001), 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24.59$  df=8 p=0.01).

### 3) 자원봉사 참여선호유형

<표 8>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참여선호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와 관련된 가치관, 이해도 및 태도와 관련된 총 18항목에 대해 설문을 하고<sup>6)</sup>, 이를 각 유형별로 묶은 결과이다. 즉 대구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선호유형을 정의하기 위해 18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으로 성격지워졌는데, 제 1요인은 사회문제나 사회운동과 관련한 봉사활동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문제 참여선호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제2요인은 자원봉사대상자,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선호하는 특성으로 「직접 서비스 선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제3요인은 헌혈이나 사후 장기기증 등 박애주의 성향이 뚜렷한 특성으로 「박애주의 선호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제4요인은 주로 직업이나 특기 등 전문기술 활용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술 활용 선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점수를 가지고 대구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특성을 집단별로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제

6) Smith의 자원봉사자 유형, 즉 서비스 지향적 자원봉사자(service-oriented voluntarism), 이슈지향적 혹은 원인지향적 자원봉사자(issue-oriented or cause-oriented voluntarism), 자기성취적·자기표현적 자원봉사자(consummatory/self-expressive voluntarism), 직업적·이익추구적 자원봉사자(occupational/self-interest voluntarism), 박애적·기금제공적 자원봉사자(philanthropic/funding voluntarism) 유형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항이다. 문항간 내적일관성은 Cronbach Alpha값으로 측정하였는데, 사회문제참여 선호성은 .7624, 직접서비스 선호성은 .7469, 박애주의 선호성은 .7328, 전문기술활용성은 .6916으로 나타나 신뢰성 있다고 판단된다.

1군집은 「박애주의 선호형」, 제2군집은 「직접서비스 선호형」, 제3군집은 「전문기술 활용형」, 제4군집은 「사회문제참여 선호형」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8> 시민자원봉사 참여선호유형 군집분석 결과

요 인	군집분류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1요인	-.73165	.07475	-.18427	.74942
2요인	-1.07613	.72646	.03767	.02092
3요인	-.26182	.23527	.76071	-.93161
4요인	-.47613	-.80148	.81734	.40485
	박애주의 선호형	직접 서비스 선호형	전문기술 활용형	사회문제참여선호형

<표 9>는 대구시민들이 선호하는 자원봉사 참여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직접서비스 선호형이 28.1%, 전문기술활용형이 27.6%, 사회문제참여 선호형이 23.9%, 박애주의 선호형이 20.4%로, 직접서비스 선호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문기술활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시민 자원봉사 참여선호유형

단위 : 빈도(%)

항 목		박애주의 선호형	직접 서비스 선호형	전문기술 활용형	사회문제 참여 선호형	통계값
전 체		204(20.4)	281(28.1)	276(27.6)	239(23.9)	-
성별	남자	80(16.5)	111(22.8)	157(32.3)	138(28.4)	x <sup>2</sup> =32.079 df=3 P=.000
	여자	124(24.1)	170(33.1)	119(23.2)	101(19.6)	
연령	20대	44(16.3)	61(22.6)	119(44.1)	46(17.0)	x <sup>2</sup> =115.492 df=12 P=.000
	30대	46(16.7)	89(32.2)	87(31.5)	54(19.6)	
	40대	33(16.0)	68(33.0)	44(21.4)	61(29.6)	
	50대	32(24.8)	37(28.7)	15(11.6)	45(34.9)	
	60대이상	49(41.2)	26(21.8)	11(9.2)	33(27.7)	
학력	중졸이하	78(36.4)	54(25.4)	26(12.0)	56(26.3)	x <sup>2</sup> =132.435 df=12 P=.000
	고졸	85(20.6)	141(34.2)	86(20.9)	100(24.3)	
	대재	18(13.0)	23(16.7)	75(54.3)	22(15.9)	
	대졸이상	24(10.2)	61(25.8)	89(37.7)	62(26.3)	
소득	무응답	3(8.6)	12(34.3)	13(37.1)	7(20.0)	x <sup>2</sup> =22.122 df=12 P=.036
	100만원미만	74(27.0)	79(28.8)	62(22.6)	59(21.5)	
	100-200만원	92(19.8)	123(26.5)	138(29.7)	111(23.9)	
	200-300만원	25(15.7)	49(30.8)	47(29.6)	38(23.9)	
	300만원이상	10(14.7)	18(26.5)	16(23.5)	24(35.3)	



한편 대구시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선호유형 분포를 알아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문기술활용형」이 3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문제 참여선호형」이 28.4%, 「직접서비스 선호형」이 22.8%, 「박애주의 선호형」이 16.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직접서비스 선호형」이 33.1%로 가장 높고, 「사회문제 참여형」이 19.6%로 가장 낮게 나타나 남성과 상당히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chi^2= 32.08$  df=3 p=0.000).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개발과 직업발달(career advancement)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직업과 관련된 자원봉사조직에 소속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다(Williams & Ortega, 1986:35-44).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전문기술활용형」이 44.1%로 가장 높고, 「박애주의 선호형」이 16.3%로 가장 낮게 나타난 한편, 30대의 경우 「직접서비스 선호형」과 「전문기술활용형」이 32.2%, 31.5%로 각각 나타났으며, 「박애주의 선호형」은 16.7%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40대의 경우는 「직접서비스 선호형」이 33.0%로 가장 높으며, 50대는 「사회문제참여 선호형」이 34.9%로 가장 높고, 「전문기술활용형」이 1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경우 「박애주의 선호형」이 41.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기술 활용형」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 유형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chi^2= 115.49$  df=12 p=0.000). 학력의 경우에는 중졸이하 응답자는 「박애주의 선호형」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자의 경우는 「직접서비스 선호형」이 34.2%로 가장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기술 활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전문기술활용형」이 54.3%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chi^2= 132.44$  df=12 p=0.000). 소득별로는 100만원미만의 경우 직접서비스 선호형이 28.8%, 박애주의 선호형이 27.0%로 가장 높았으며, 100-200만원의 경우는 전문기술활용형이, 200-300만원의 경우는 직접서비스 선호형과 전문기술활용형이, 300만원이상은 사회문제참여 선호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chi^2= 22.12$  df=12 p=0.036) 각 계층별로 자원봉사 선호유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시민자원봉사인식 및 태도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시민 대부분이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4명중 3명은 '여유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인식과 실제 참여는 아직도 유리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될 경우 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대다수가 자원봉사를 희생이나 자선, 선행, 남을 돕는 일 등의 시혜적인 선의의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자 시민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원봉사 인식이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하는 시민의 의무라는 시민의식으로까지 내면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원봉사 참여유형이 대인관계지향적인 직접서비스 선호형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전문기술활용형과 사회문제참여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접서비스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층과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계층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원봉사활동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자를 단일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별적 존재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VI. 결론 :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전망 및 과제

본 연구는 시민자원봉사활동에 대해 80년대 이후 대상별, 수요처별로 각기 필요에 의해 연구되어 온 여러 조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특성들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연구절차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연구의 일차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자원봉사의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자원봉사기관이나 활동터전의 각기 다른 이해들로 인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각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분석에 들어가면 일상생활속에서의 자발적, 지속적 시민참여라는 질적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1년이상 참여자를 자원봉사자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장년층에 한정되는 연령층의 불균형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고, 참여자 2/3이상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자원봉사활동의 장이 지극히 한정적인 특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개별적이고 고립적이며, 단절적, 한정적인 특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식 및 태도에 있어서 시민들은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4명중 3명은 '여유가 되면 참여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인식과 실제 참여는 아직도 유리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상하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선적, 시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원봉사 참여유형이 대인관계지향적인 직접서비스 선호형이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남성의 경우 전문기술활용형과 사회문제 참여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접서비스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층과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계층별 특성과 욕구가 매우 상이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자원봉사자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쉬우나 이들의 욕구는 결코 단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자원봉사는 시민의 보편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 및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이외에도, 시민단체의 활발한 목소리, 노령인구의 증가, 근로시간 축소, 정부인식의 변화 등 시민자원봉사활동의 확대를 자극하는 변화가 외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시민자원봉사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다. 자원봉사를 단순히 동정과 희생으로 보는 일방적, 은정주의적 개념에서 양방향성, 상호성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자원봉사계층의 불균형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나 수혜자,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상호적 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요소를 배제한 대인관계적 차원의 직접서비스 지향에서 사회변화와 정책개입에 대한 현실참여를 포괄하는 활동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라는 질적 제고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선호유형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시민자원봉사자를 단일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시민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특성, 욕구 등을 입력해 놓고 필요한 경우 연결해주는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층의 경우 자원봉사를 성적, 취업 등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자원봉사 참여선호유형에 있어서도 전문기술활용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볼 때, 기술과 직업개발을 강조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직업개발모델(career development model)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연구결과(Michael, 1994:117-119)에 비추어볼 때, 자원봉사에 대한 젊은 층의 동기나 선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무조건 배타시할 것이 아니라 자기개발이나 직업개발과 연관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별화의 원리 뿐만 아니라 개별성에 바탕을 둔 조직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시민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시스템으로부터 유리되어 고립적,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변화세력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개인의 참여욕구를 반영한 지역밀착형의 민간비영리조직(NPO)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네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특성 및 욕구, 태도 등에 대한 지속적, 정기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질적 변화양상에 대한 정기적인 과학적 분석이야말로 시민자원봉사활동의 확충 및 발전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기본요소가 된다. 따라서 전국차원의 시민자원봉사에 대한 실증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노력들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전제한 파트너십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를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체물로 보는 단선적인 정책은 배제되어야 한다. 즉 자율성을 보장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야말로 시민자원봉사를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요컨대 시민자원봉사가 단순히 시민의 선의의 활동을 보증하고 촉진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민사회의 존재방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특성들과 과제들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동배 외. 1998. 전국 자원봉사센터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김미숙·김성희. 1999.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보건복지포럼, 제28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미애. 1997.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체계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대구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 1997. 자원봉사총람. 대구: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 대구사회복지협의회. 1993. 자원봉사자의 활동실태와 효율적 활용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볼런티어21. 1999. 99 한국인의 자원봉사의식과 활동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 볼런티어21.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1996. 부산시민들의 자원봉사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울산자원봉사센터. 1997. 울산시민들의 자원봉사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울산: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 이미정. 1996.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창호. 1999. "시민운동, 사회복지, 자원봉사", 주성수 외 편저, 새천년 한국사회의 비전.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이청자 외 3인. 1993.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전라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1998. 전주시민들의 자원봉사의식에 관한 연구. 전주: 전라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 정무장관(제2)실. 1993.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 조항입. 199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의 활용실태와 수요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주성수. 1999.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영길. 1986. "볼런티어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중앙일보. 1996. 7. 7.

- 채서일. 1995.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대사회연구소. 198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연구.
- Ilsey, P. J. 1990.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New Insights on Strengthening Volunteer Participation, Learning and Commitment*. Oxford: Jossey Bass Publishers.
- Mary Morris. 1998. *Voluntary work and the Welfare State*. 2th edition. London: Routledge.
- Michael, J. Z. 1994. "Measuring Career-Development Volunteerism : Guttman Scale Analysis Using Red Cross Volunte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9.
- Williams, J. A., & Ortega, S. T. 1986. "The Multidimensionality of joining".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5.